

현대공업,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개발업체**‘앰프리우스’에 140 만 달러 지분 투자**

- ▶ 국내를 넘어 미국까지, 차세대 이차전지 사업 투자 확대
- ▶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발굴에 힘쓸 것

<2021-03-30>자동차 내장재 전문기업 ‘현대공업’(170030, 대표이사 강현석)이 ‘앰프리우스(Amprius)’에 140만 달러 규모의 지분투자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앰프리우스 지분 투자는 전기차 산업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이차전지 사업 투자 포트폴리오 확대의 일환이다. 최근 현대공업은 ▲이차전지 분리막 코팅 제조업체 ‘에너이버배터리’, ▲전고체전지 개발업체 ‘솔리비스’에 투자를 진행했다.

미국에 위치한 앰프리우스는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개발업체로 ^{주)}나노와이어 기술이 적용된 실리콘 음극재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 앰프리우스는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테슬라와의 협업 가능성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주) 어떤 물질을 단면의 지름이 1나노미터인 극미세선으로 만드는 기술을 의미

이차전지의 주요 구성요소인 음극재는 대개 흑연을 소재로 사용하지만 이를 실리콘으로 대체하면 배터리의 전자 밀도를 높여 배터리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리콘은 전기충전 중 심한 부피팽창과 손상으로 음극재로 사용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하지만 앰프리우스는 실리콘을 나노와이어 기술로 가공해 부피팽창과 손상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것이 실리콘과 흑연을 함께 사용한 ‘복합 음극재’와 500Wh/Kg의 높은 에너지밀도를 가진 ‘100% 실리콘 음극재’다.

현대공업 관계자는 연이은 이차전지 사업 투자확대에 대해 “향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인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기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투자기회 발굴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